

카일 던햄 박사, 욥, 엘리파즈 1

© 2024 카일 던햄(Kyle Dunha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욥기에 나오는 경건한 현자 엘리바스에 대해 가르친 Dr. Kyle Dunham입니다. 이것은 에돔의 지혜의 맥락에서 본 엘리바스의 첫 번째 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일 던햄입니다. 나는 미시간 주 앨런 파크에 있는 디트로이트 침례신학교의 구약학 부교수입니다. 오늘 나는 욥기에 관해 토론하고 그의 조연자나 친구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욥과 함께 이들 대화자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고, 나의 논문 작업은 특히 대화자들 중 선두에 있는 엘리바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Wipf & Stock의 The Pious Sage in Job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숨겨진 더 많은 자료에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책을 집어 들고 제가 욥기를 훑어가는 동안 그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욥기에 이르면 여러 면에서 해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학적 걸작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대화의 복잡함은 욥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이 책은 일반적으로 문학적 칭찬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욥기가 인간의 펜으로 쓰여진 것 중 가장 장엄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세 동료에게 의도한 역할을 독자가 평가하려고 하면 해석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집니다. 성경 이야기는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을 듣고 친구들이 그를 동정하고 위로하기 위해 함께 약속을 잡았다는 것을 예기치 않게 간결하게 보고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이 내용을 읽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읽고 그에 대해 논평하고 싶습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는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 고향에서 돌아왔다. 데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동정심을 표시하고 위로하기 위해 함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그분을 보았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칠일낮 칠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에게 말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고난이 심함을 보았음이라. 친구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장황한 이야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되고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하도록 합니다. 더욱이 펼쳐진 책은 친구들이 이전 친구에게 전달하려는 동정심과 위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를 점점 더 괴롭힌다.

친구에 대한 그러한 평가에서 주요 대변인인 대담자 엘리바스에게 암시된 해석적 모호성이 빠르게 드러납니다. 엘리바스는 세 동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말을 하고 그의 연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길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그를 전통주의자이자 전통 지혜 신학의 수호자로 평가합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든 비난받을 만하지만 그의 신학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엘리바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심지어 우리가 이 책에서 수석 조연자로서 패러다임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그를 따르는 후대의 친구들에게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그의 연설은 욕기에서 인간 연사가 제시하는 다양한 신정론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하나님의 의와 조화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엘리바스가 특히 후기 연설에서 욕을 거칠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단번에 욕을 멸망시키려는 악당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욕이 사탄의 속임수를 이용하기 위해 악용하는 악마적인

도구인 사탄에 의해 무심코 사용되었다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온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엘리바스는 이 책에서,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웅변적인 연설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책 끝에서 가혹한 책망을 위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명백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 욥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부터 욥의 해석자들은 친구들의 의도된 역할에 대해 숙고한 것 같습니다. 욥에 대한 최초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의 가혹함을 누그러뜨려 그와 그들을 왕으로 만들고 그들의 연설을 히브리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현자의 말을 권위 있게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엘리바스의 첫 연설에서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하여 지혜로운 자들의 간교함을 낚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엘리바스를 인용하더라도 이 인물의 해석적 역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교회는 그를 양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세 시대에는 첫 번째 현자에 대한 매우 가혹한 해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이후에 발생한 해석적 양극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학적 과잉에 빠진 거친 상담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엘리바스는 우리가 해석적 재할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욥기 학자들과 주석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르네상스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저자가 엘리바스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만들어 그의 역할이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을 모두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를 점점 더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엘리바스와 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해석은 주로 두 가지 노선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진영은 엘리바스를 신학적인 기여가 전혀 없는 해로운 조언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즉, 그는 욥에게 해를 끼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해석자들은 그 친구들이 욥기 저자가 욥 자신의 신학에 대한 피상적인 대응물을 제공하기 위해 데려온 단순한 악당들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저자가 책의 주요 교리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친구들은 책에서 다루는 이러한 도전을 실제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죄한 자의 고통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견해의 결과는 그 친구들이 표현의 다양성이 거의 없고 책의 신학이나 신정론에 실제로 추가할 것이 전혀 없는 나무적이고 정적인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엘리바스를 상당한 신학적인 공헌을 한 정교한 상담자로 여겼습니다.

Carol Newsome의 연구와 같은 최근 연구는 대화가 제공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 감각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친구들의 재활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Newsome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의 모델이 되는 문학적 장르인 지혜 대화(Wisdom Dialogue)가 그 대화가 균등하게 균형 잡힌 토론으로 간주되도록 의도되었음을 암시한다고 관찰합니다. Manfred Oeming도 마찬가지로 독자가 그들을 진정한 친구로 인식해야 한다는 텍스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해석자의 손에 나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목사로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Oeming이 말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초기 관계를 참조하여 그의 경쟁에서 신뢰자로서 외부 및 내부 역경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해석의 역사에서 그들이 상대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그를 채찍질하는 무감각한 문구 장사꾼, 불쌍한 위로자로 간주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Oeming은 내가 인식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본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한 친구, 좋은 신하로 그려내려는 것이 시의 의도인 것 같다. Oeming은 계속해서 원래 청중이 친구들을 효과적인 상담자로 인식했을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그들은 처음에 욥에게 왔을 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욥에 대한 연대감과 인내를 표현하는데, 이는 그들이 친구이자 현명한 조언자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그들은 성급하게 말을 하기보다는 욥이 먼저 말을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7일 동안 앉아 있는 동안 이러한 종류의 절제된 청취를 통해 욥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가장 먼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엘리바스는 다소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셋째, 친구들은 계속되는 논쟁에서 서로를 단지 반성이나 반복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교환 과정의 참가자로 인식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이 역경 중에 있는 욥에게 목회적인 돌봄을 가져다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이는 욥이 자신이 고수했던 초기의 신학적 입장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욥이 신성한 지혜의 회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은 특히 고통이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 개념과 관련하여 신학적 지혜의 공통된 특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욥기에 자주 언급되는 행위 결과 연결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화해를 구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최근의 학자들은 친구들을 단순히 고대 현자의 우스꽝스러운 캐리커처나 이데올로기적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신학적으로 세련된 상담가이자 진정한 동반자로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욥의 고통을 해결합니다. 내 자신의 연구에서 나는 엘리바스를 주요 대담자로 보지만 그가 등장하는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복합적 관점 접근 방식에 이르렀습니다. 즉, 이 책을 연구하면서 나는 그가 허수아비나

패러디된 어릿광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대 근동 신정론의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곤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고통과 신의 섭리에 대한 고대 근동의 가장 소중한 교리를 구현합니다. 그분은 욥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칙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권위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욥이 묵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당황하게 되었고, 책 마지막에는 놀랍고 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욥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는 그의 사상이 실현되는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이 책에서 엘리바스와 그의 연설에서 그의 역할을 일관되고 철저하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실제로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나는 엘리바스가 고대 근동의 가장 훌륭한 요소들과 궁극적으로 인간 지혜의 가장 훌륭한 요소들을 선도하는 옹호자로서 이 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가 이 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맥락에서 욥을 더 잘 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욥에 대한 이전 접근 방식에는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한 엘리바스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전의 접근 방식은 엘리바스를 그의 수용 이력 측면에서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엘리바스가 읽혀지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극단으로 읽어야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인역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해석자들이 처음부터 엘리바스가 이 책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이전의 조사가 그의 에돔 출신의 의미를 완전히 탐구하지 못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욥기의 주요 인물은 아마도 에돔 사람일 것입니다. 욥은 우스 출신이다(욥 1:1). 이 땅은 아마도 팔레스타인이나 가나안 남동쪽에 있는 에돔과 동일시되는 땅일 것이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기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다만 출신입니다.

이곳은 에돔과 접해 있는 지역으로 에돔과 에돔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돔은 지혜로 유명했고, 이 지혜 전통이 엘리바스의 신학적 전망과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철저하게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에돔 방언과 에돔 비문에 대한 최근 연구는 엘리바스와 다른 사람들이 출현하게 된 종교적, 지혜적 맥락에 대해 추가적인 빛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에서 이 자료의 일부와 상호 작용합니다. 셋째,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학적 반응을 구성한 지혜의 원천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견해는 엘리바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종종 그를 신명기의 보복 신학을 편협하게 옹호하는 사람으로 몰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Eliphaz가 그리는 다면적인 출처와 관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의 일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고대 근동의 배경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신정론을 배경으로 그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이들 중 소수는 엘리바스를 더 넓은 메소포타미아 지혜 전통에 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욥에 비유된 이 작품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즉, 욥기 전체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고대 근동의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빌로니아 신정론, 의로운 고통의 이야기, Ludlul bel nemeqi 등과 같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이들 작품 중 다수에서 욥기에서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수석 상담자, 수석 대담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려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이 역할은 엘리바스에 의해 수행됩니다.

즉, 과거에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것은 고대 근동 작품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의로운 고통받는 사람이 그를 해결로 이끌려는 친구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입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도 발생하지만, 과거의 연구에서는 당시의 원래 청중이 엘리바스가 책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방법과 충분히 상호 작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주요 현자로서 엘리바스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찰을 종합한다면 우리는 욥기 전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은 고대 근동 지혜 신학의 전통에서 욥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끌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는 욥기 저자의 중요한 목적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무능함을 통해 욥기 저자는 고통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을 해결하는 데 전통적인 고대 근동 신학 적 관점이 실패했음을 제시하거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현명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조언을 제시하지만, 욥기의 성경 저자는 그의 조언에 궁극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고난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곤경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성경적 강조 사이의 이분법에 내재된 긴장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욥기는 성경의 지혜서에서 주목할 만한 대위법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대 근동에서 인간 지혜의 가장 높은 성취와 가장 심오한 관점을 구현했지만, 그의 관점은 결국 단지 인간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대위법으로 표시됩니다.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율화를 옹호하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고대의 대표적인 신학 율법주의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예시하는 율법주의자로서 엘리바스는 타락 이후 인류에게 고유한 종교적, 신학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담과 가인, 인류 역사의 시초에 나온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는 엘리바스의 부적절한 수단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욥기와 간략하게 설명된 사건 및 연설은 종교 공동체 내의 독자들에게 죄, 고통, 의,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학적, 지속적, 사려 깊고 지속적인 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신의 섭리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에 빠진 신자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 책은 창조물을 인도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특성과 묘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책에서 그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세부 사항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숭고한 위대함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고대 독자들이 욥과 엘리바스를 그들의 전통 내에서 문학적 인물과 현자로 어떻게 여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누구입니까? 욥이라는 이름은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서 그의 이름을 딴 책 외에 구약에서 두 번 언급됩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욥을 고대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건지려니와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음이니라.

욥이라는 이름은 외경 지혜서인 벤 시라(Ben Sira)에서 칭송받는 영웅들의 신전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의 길을 굳건히 지켰던 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글은 에스겔서에 의존한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야고보는 욥을 모범적인 인내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호와와 뜻을 보았거니와 여호와와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니라. 개인 이름인 욥(Job)은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의 아카드어, 아시리아어, 이집트어, 우가리트어의 비문에서 널리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은 14세기 아마르나 편지, 알라크의 아모리어 비문, 19세기 이집트의 저주 문서, 13세기 궁궐 관리 목록을 포함한 여러 우가리트 문서에 나타납니다.

이름의 의미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욥이라는 이름 'oēv'와 원수를 뜻하는 용어 'oēv' 사이의 일부 동족 및 주장된 일치성을 토대로 적의의 의미 또는 적의를

표시하는 의미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로 비난하는 욥기 13장 24절과 같은 본문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기의 원래 독자들이 거의 확실하게 이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David Clines는 이 용어의 출처와 의미가 우가릿 어원과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나는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가릿 증거에 따르면 이름의 어원은 두 단어인 l(어디를 의미함)와 of(신위론적 구성 요소)의 합성어에서 유래했음을 시사합니다. 즉, 그것은 신성한 아버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야쿠(ayaku) 라는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이는 내 동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욥이라는 이름은 나의 신성한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클라네스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욥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신의 도움을 구하는 간청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이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는 Northwest Semitic과 몇 가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욥은 어디서 왔습니까?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그가 우스 땅 출신이라고 말하며, 두 가지 주요 전통은 현대 시리아나 고대 에돔 또는 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리아와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요세푸스의 일부 저술물과 기타 고고학적 발견물에 따르면 고대 아시리아의 비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Barton은 Uz가 현대 시리아에 위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9세기에 살만에셀 2세가 쓴 아시리아 비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리아 출신에 대한 증거는 다른 것보다 더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기의 주인공들이 에돔 사람들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스가 가나안 남서쪽의 에돔이나 팔레스타인과 동일시되는 것은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다. 첫째, 우스라는 이름은 창세기 36장 28절의 에돔 족보에 나옵니다.

둘째, 우스는 구약성서에서 시적 평행법을 통해 에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가 4장 21절에서 저자는 “딸 에돔아 우스 땅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에돔 사람들을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밝힌 것 같습니다.

셋째, 욥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은 에돔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바스는 창세기 36장의 에돔 족보에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넷째, 욥의 주된 대화 상대인 엘리바스는 에스겔 25장과 아모스 1장과 같은 여러 구절에서 에돔 아래에 포함된 지역인 디만 출신입니다. 에돔 왕국과 에돔의 지혜로.

에돔과 티만은 그들의 지혜로 유명했으며 성경 본문과 성경 외 본문에서 심오한 지혜 전통을 영속시키는 것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만이라는 용어는 구약성서에서 약 20번 정도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디만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 중 한 명, 즉 그의 씨족의 족장과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36 장 15절과 42절에서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에서의 손자이자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에돔 족장들의 이름은 에돔 영토의 지역 구역과 연관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엘리바스와 디만 및 관련된 지명이나 장소 이름이 실제로는 에돔인 영토를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하는 강력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에돔의 가장 두드러진 두 영토에 관해서, 디만은 성경 예언에서 바스라와 짝을 이루는데, 이는 디만 지역이 에돔의 남쪽 지역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바스라가 북쪽 지역의 주요 도시일 것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서에서 아모스는 여호와의 판결에 관해 예언합니다. 내가 디만에 불을 보내리니 바스라의 견고한 성을 사르리라.

에스겔 25장은 디만과 에돔의 또 다른 지역인 드단을 연결합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곳에서 끊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디만에서부터 드단까지 황폐하게 하리니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 성경 구절에서 티만은 특히 유명한 지혜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에돔 자체와 동일시됩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과 20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제유법으로 에돔 전체를 지칭하게 된 지역인 디만의 유명한 현자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노라 에돔에 대하여는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디만에게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슬기로운 자에게서 조언이 사라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는가? 이어서 그는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세우신 계락과 디만 거민에 대하여 세우신 계락은 이러하니 양 떼의 어린 것들도 끌려가리라 분명히 그들의 무리는 그들의 운명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 가장 가혹한 말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 오만한 절벽 거주자들이 공모하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파멸적인 운명을 선언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넘어서 심지어 중간기에도 우리는 에돔과 지혜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언급을 봅니다. 유대인의 외경에는 바룩, 디만, 에돔이 지혜의 보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에 지혜가 있는 곳과 능력이 있는 곳과 명철이 있는 곳을 배우라 그리하면 장수와 생명이 있는 곳과 만민에게 빛이 있는 곳을 분별하리라 눈과 평화.

그런 다음 계속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그 지혜는 가나안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디만에서 본 적도 없다. 거기에는 다시 티만과 에돔과 그 지혜의 전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에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두 가지 이유는 70인역 욥의 부록에 있을 것입니다. 이 번역본에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에돔 출신의 왕으로 묘사되는 장문의 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록에서 번역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에돔을 다스린 왕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브올의 아들 벨라를 다스렸고 그 다음은 욥이라고 불리는 벨라 요밥을, 그 다음은

후삼을 다스렸습니다. 요밥에 대한 이 언급은 창세기 36장의 에돔 족보와 연결된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후손이 벨라와 요밥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초기 번역자들이 욥을 에돔 사람들과 연결시켰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에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책에서 제시하는 지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돔의 지혜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에돔이 출현한 맥락에서 우리가 그들을 더 잘 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에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에돔은 이스라엘에 왕권이 출현하기 전에 확립된 군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비록 모세가 예고적으로 글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주석가들은 종종 편집자의 논평을 봅니다. 에돔 군주제에 대한 성경적 요약은 에돔의 역사 초기에 고대 근동의 공통 재고였던 지혜 자료의 기원과 보급을 어느 정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정치적 조직과 사회적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당시 세계 강국들과 상당히 광범위한 상호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카르나크 신전에 있는 자신의 지형 목록에 에돔 족장들의 신권적 이름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고대 근동 자료는 기원전 14세기에 타니스에서 발견된 두 개의 오벨리스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조직화된 에돔 문화를 암시합니다. 이 두 비석 중 남부 비석은 리비아인과 누비아인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북부 비석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아시아 유목민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그 용감한 팔로 세일 산을 약탈한 맹렬한 성난 사자라 하였느니라.

윌리엄 F. 올브라이트(William F. Albright)는 1300년경에 세일 산이 이미 이집트 군대의 습격을 받을 만큼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에돔의 유목민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아나스타시 파피루스입니다. 이는 13세기 세토스 2세의 통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에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정착 생활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들을 이방 민족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12세기 람세스 3세의 통치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해리스 파피루스(Papyrus Harris)의 언급에는 유목민 세이리테스(Seirites)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 그는 내가 아시아 유목민 지파 중에서 세일을 멸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천막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에돔은 고대 근동 지역의 상업 중심지인 요지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킹스 하이웨이(King's Highway)를 따라 위치해 있었고 고대 세계에서 일어난 교통과 상업 흐름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의 고속도로는 고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국제 무역로였습니다. 트랜스요단 지역의 에돔 산간지대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와 다마스쿠스 사이를 직접 연결해 주었습니다.

무역 사상과 종교 모두의 흐름이 바로 에돔의 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에돔은 고대 상업 중심지로 통하는 주요 관문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에돔이 그 위치상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아라비아 무역로를 통제하기 위한 투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역 및 상업과 함께 서면 자료도 종교 서적과 함께 전달되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적어도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시리아 북부의 암마르와 가나안의 므깃도를 포함하여 꽤 먼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그리스에서 발견된 카시트형 인장의 캐시도 있습니다.

이는 문화와 종교 사상의 폭넓은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욥이 소발에게 대답하여 묻는 질문 중 하나를 통해 입증됩니다. 그분은 묻습니다.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되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냐? 이 언급은 상업 도로에 대한 접근과 이 도로를 따라 여행하는 다른 민족 및 문화, 사업가 및 종교적 관찰자와의 접촉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에돔을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종교적 연결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 중 하나는 이 유명한 에돔의 지혜에 대한 유형의 서면 증거가 왜 그렇게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비문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에돔의 지혜를 종합하려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돔 지혜의 주요한 예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이나 구약에 통합되었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는 20세기 초 로버트 파이퍼(Robert Pfeiffer)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어려움은 신학적으로 다소 부주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것을 강등한다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신약성서는 유대 민족이 구약성경의 정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중보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예레미야와 오바댜가 예언한 대로 에돔 사람들이 멸망되었을 때 에돔의 자료를 구약성서에 포함시키기는커녕 완전히 말살되었기 때문에 그 멸망 이후 어떤 기록된 증거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단순히 잘못된 곳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고대 셈어 간의 유사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돔의 비문이 잘못 식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에돔의 비문이 히브리어나 모압으로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해 온 일부 사람들이 취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런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려고 노력할 때, 에돔 지혜의 신학적 윤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혜 전통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이들이 고수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해낸 학자는 로버트 파이퍼(Robert Pfeiffer)입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에돔 지혜의 본질에 대해 논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구약성경을 보면 성경의 특정 부분, 유사한 정신, 특정 신학 교리에 대한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책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잠언의 마지막 두 장인 아굴과 르무엘이 시편의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욥기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종합함으로써 우리가 에돔의 지혜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지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이퍼의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고대 에돔에는 지혜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49장과 오바댜와 같은 구절에는 에돔의 전설적인 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은 그들이 그들의 지혜로 존경받고 유명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요인은 솔로몬이 동방의 모든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이퍼는 욥이 동방의 아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을 에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언급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내가 말했듯이 파이퍼는 성경의 특정 구절이 이러한 에돔의 강조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잠언서의 욥이라고도 불리는 잠언 30장 아굴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89편과 88편,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퍼는

옴기와 잠언에서 자신이 유대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에돔 신학과 대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 가설에 덧붙였습니다.

그는 에돔의 지혜는 비관적이고 불가지론적이며 인간의 율법을 보복적인 보상이나 처벌의 희망이 없는 수고로 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인간사에 관심이 없으시며 절대적으로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내 작업에서 나는 에돔의 지혜 구절과 다른 것들을 검토하면서 에돔의 지혜를 세 가지 교리를 통합하여 요약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의 하나님이 두렵고 신비로운 자연의 신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해하려면 먼저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문헌에 나오는 에돔의 신은 코스(Kos)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반영된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국가 밖의 에돔 사람들은 코스의 아들을 의미하는 바르코스라는 신권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코스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에돔 종교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에돔 사람들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이것과 상호 작용한 한 작가는 Lawrence Zalcman입니다. 그는 에돔의 신 코스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히브리어 kotz , 즉 그가 번역한 히브리어 kotz 와 연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Kotz 라는 단어는 이 초자연적 경험의 결과로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Zalcman은 이 어원을 창세기 31장의 하나님에 대한 별명, 즉 야훼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이삭에 대한 경외심과 비교합니다. 본문 뒷부분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두려워하여 맹세할 때 야훼는 단순히 두려움으로 묘사됩니다.

잘크만의 제안이 옳다면 이는 최고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지혜신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엘리바스는 또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된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본 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 신비한 존재가 유발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묘사는 14절과 15절에서 인상적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떨며 내 모든 뼈가 흔들렸습니다. 한 영이 내 얼굴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내 살털이 쭈뼛 섰습니다. 두 번이나 엘리파즈는 두려움이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로 사용하여 공포를 묘사하는데, 신이 그의 심신학적 반응을 묘사하기 위해 동의어 떨림과 함께 유도하는 공포입니다.

연설 전반에 걸쳐 엘리바스는 신성을 느끼거나 느끼는 종교적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두려움이나 두려움이라는 용어를 뚜렷하게 선호합니다. 이 용어는 악인들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임재를 확실히 경험했다는 보복 교리를 엘리바스가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연설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설에서 그는 행악자로서 욥을 사로잡은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올무가 너희 주위에 있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희를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초월적이에요. 그는 창조된 질서 그 이상입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계시를 준 영은 꿈의 환상을 다시 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의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광대한 간격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앞에서 순수할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을 불의하다고 비난하십니다.

이 신성한 초월성은 너무 커서 천상의 천사들조차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 연설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인간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이 꿈 환상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인류는 역겨워요.

욥기 15장에서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의로울 수 있다. 보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하늘이 그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아니하니라. 하물며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불의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이라.

신성한 초월성은 엘리바스의 신성한 불가해성과도 관련됩니다. 첫 번째 연설의 후반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인류가 거의 식별할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위대한 일, 측량할 수 없는 일, 셀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세 번째 연설에서 이 사실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그분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의롭다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너희 길이 순전하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인간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부족은 하나님이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신 분이 아니시냐? 가장 높은 별들을 보세요, 그것들이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물질적

우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히 초월하시며 인간사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리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보복하십니다.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은 인간을 대하는 데 변덕스러운 신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이 없지만 엘리바스는 주로 우주 정의 측정기로서 신성한 변덕에 따라 인간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예를 들어, 4장에서 엘리바스는 행악자를 하나님의 숨결에 멸망되고 그의 진노에 소멸되는 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형벌이나 축복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시는 인간사에 대한 전능한 중재자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상하게 하여 싸매고 꺾이 되 그 손으로 고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과 파괴적인 형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그의 행위를 진노하시느냐 아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악자는 15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 전능자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도덕적 성격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무자비한 의지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연설에서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능력에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반면에 악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복은 신성한 도덕적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의지의 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사람들의 지혜의 윤곽을 분석한 후에 우리는 이 책의 목적과 관련된 욥의 친구의 역할과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들의 조언은 끔찍하고 초월적이며 변덕스럽게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셨다는 사실을 욥이 인식하도록 강요하려는 잘못된

시도와 궁극적으로 실패한 시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욕은 이러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얻고 이전의 재산을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분별하는 데 있어 이러한 보복적인 접근 방식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이 증명하는 것처럼 주권적이고, 자유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는 이렇게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지혜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잠언의 일반 원칙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을 다룰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특히 그의 연설을 통해 엘리바스가 욕을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로 데려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책의 끝 부분에서는 책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책에서 엘리바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그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고대 근동 지혜 신정론의 맥락에서 엘리바스를 살펴보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은 욕기에 나오는 경건한 현자 엘리바스에 대해 가르친 Dr. Kyle Dunham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세션, 에돔의 지혜의 맥락에서 엘리바스입니다.